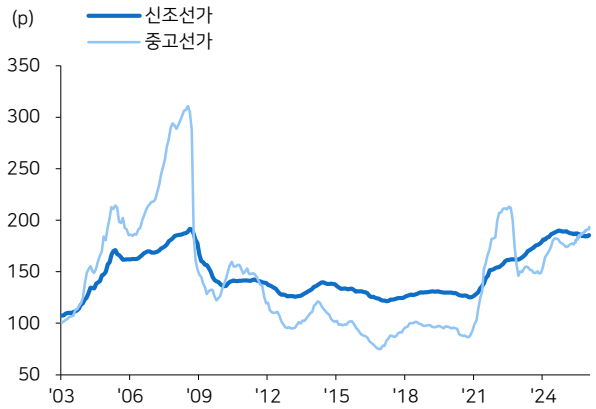
2026. 1. 15 (목)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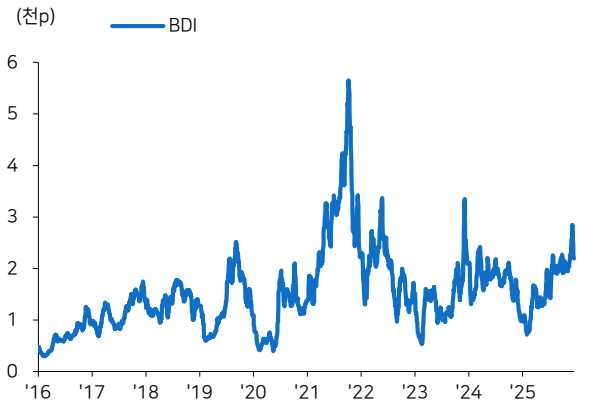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5.6p (-0.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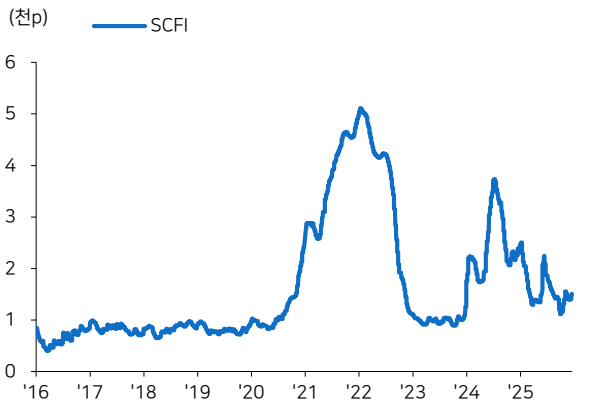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2.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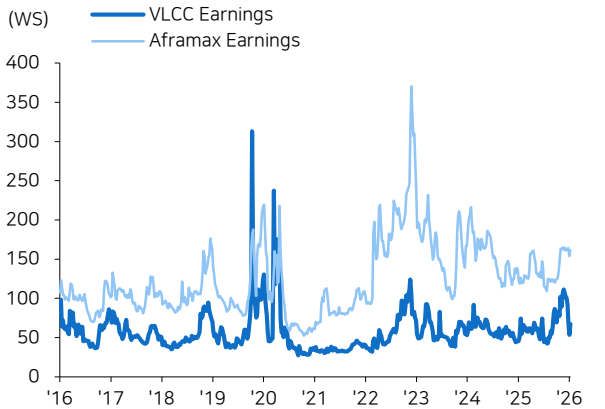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608.0p (-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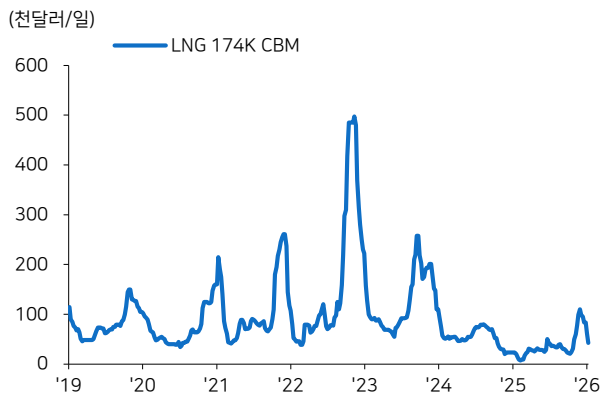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647.4p (-8.9p WoW)



VLCC Spot Rate 67.5WS (+14.0p WoW)



LNG Spot 운임 42.5천달러 (-18.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잠수함 납품 지연' 페널티 불복...한화오션 2심도 승소 — **아시아경제**

한화오션이 잠수함 납품 지연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수백억 원대 페널티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보도됨. 서울고등법은 국가에 226억7,342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고 알려짐. 장보고-Ⅱ 6번함 납품 지연이 기상 악화,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불량 등 외부 요인에 기인했다는 한화오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지체상금 부과 전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됐다고 전해짐. 다만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는 부당이득 규모를 축소해 산정했으며, 방위사업청이 이미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순지급액이 확정됐다고 알려짐. (https://buly.kr/NIBvUv)

PIL splits $1.5bn container ship haul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 **TradeWinds**

Pacific International Lines(PIL)가 LNG 듀얼연료 13,000TEU급 네오파나막스 컨테이너선 8척 건조를 위해 중국 후동중화조선과 HD현대중공업을 각각 4척씩 선정했다고 전해짐. 해당 계약이 확정될 경우 HD현대중공업은 PIL과 15년 만에 신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중국 조선소의 인도 슬롯 부족 속에서 납기 대응력이 주요 선정 배경으로 알려짐. 선박 가격은 척당 최대 190백만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2028년 말~2029년 초 인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이는 경쟁 선사들의 선대 확장에 대한 대응으로 보도됨. (https://buly.kr/9BX59ap)

Asyad Shipping inks trio of VLCC newbuildings in deal worth almost $400m — **TradeWinds**

오만 선사 Asyad Shipping이 대한민국 한화오션에 듀얼연료 대응 300,000dwt급 VLCC 3척을 발주했으며 계약금액은 3억8,850만 달러, 척당 가격은 약 1억2,950만 달러로 알려짐. 해당 VLCC들은 샤프트 제너레이터와 스크러버 등 고사양 설비가 적용돼 연료 효율과 에너지 절감 성능이 강화된 설계로 2028년~2029년 사이 인도될 예정으로 전해짐. Asyad Shipping은 노후 증기터빈 LNG선 4척을 110백만 달러에 매각하는 등 선대 교체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번 발주는 장기적 선대 현대화 전략으로 보도됨. (https://buly.kr/NIC6ja)

㈜한화, 테크·라이프사업 떼고 방산·조선·해양 주력 — **한국경제**

㈜한화가 방산 · 조선 · 해양 · 에너지 · 금융 부문을 존속법인으로 두고, 테크 및 라이프 부문을 신설법인으로 분리하는 인적 분할을 이사회에서 결의했으며, 6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이번 분할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등은 존속법인에, 한화비전, 한화모멘텀, 한화세미텍, 한화로보틱스, 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아워홈 등은 신설법인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에 편입되며, 분할 비율은 순자산 기준 존속법인 76.3%, 신설법인 23.7%로 알려짐. ㈜한화는 인적 분할과 함께 보통주 445만주 소각과 최소 주당 배당금 1000원 설정 등 주주환원 정책을 병행할 계획으로 전해짐. (https://buly.kr/BIWAk7X)

한화필리조선소, '120 억원' 미국 정부 지원금 획득...조선 전문 인력 양성 투입 — **더구루**

한화필리조선소가 미국 노동부로부터 4년간 800만 달러 규모 보조금을 확보해 델라웨어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Drexel University 등과 함께 조선 인력 양성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숙련공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화한다고 보도됨. 용접 · 전기 · 배관 등 핵심 기술 분야 교육, 가상현실 기반 훈련,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연계 연수 등을 포함해 2027년까지 견습생 채용 규모를 최대 500명으로 확대한다고 알려짐. 39개월 무상 견습 과정과 한국 숙련 인력 파견을 병행해 미국 조선 인력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https://buly.kr/DPVGVzr)

HD 현대중공업, ABS 서 '부유식 해상변전소' 개념승인...원양 해상풍력 겨냥 — **프레스나인**

HD현대중공업이 미국선급협회(ABS)로부터 원양 해상풍력단지 지원용 차세대 부유식 해상변전소 설계에 대해 개념승인(AiP)을 획득했으며, 구조 건전성 관리 SMART(SHM) Tier 3 등급으로 승인받았다고 보도됨. 해당 설계는 고정밀 계측 데이터와 예측 모델링을 결합해 실시간 상태 검증과 조기 이상 감지를 강화해 유지보수 최적화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알려짐. 부유식 해상변전소는 원양 해상풍력 전력의 집전 · 변환 · 송전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로, HD현대중공업은 향후 실제 건조 · 운영 단계에서도 ABS와 기술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https://buly.kr/5UJAN76)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